

빛나는 성장의 그늘, ‘배신’의 서사로 다시 쓰는 인도 현대사

아쇼카 모디, 최준영 옮김, 『두 개의 인도』(생각의 힘, 2024)를 읽고

이지은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I. 신화와 현실

냉전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인도를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world’s largest democracy)’로 지칭해 온 표현은 서구 세계가 인도에 대해 품어온 전통적 호의와 기대를 상징한다. 빈곤에서 IT 강국으로 비약하는 인도의 눈부신 미래는 더 이상 낮설지 않다. 1990년대 이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one of the fastest-growing major economies)’, ‘신흥 강대국(emerging superpower)’, ‘IT 강국(IT powerhouse)’ 등으로 대표되는 인도에 대한 찬사는 국내외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최근에는 제조업, R&D,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가 ‘글로벌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인도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언론 보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프록터앤갬블 CEO 출신이자 작가인 구르차란 다스(Gurcharan Das), 콜럼비아 대학교의 경제학자 바그와띠(Jagdish Bhagwati), 아시아개발은행을 거쳐 바그와띠의 뒤를 이은 빠나가리야(Arvind Panagariya) 등의 학자·전문가도 인도의 경제성장 서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온 대표적 인물이다.

인도를 바라보는 이러한 낙관적 시선은 과연 얼마나 현실에 부합하는가? 인도의 경제 발전은 실제로 다수의 삶을 개선해 왔는가? 민주주의는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아쇼카 모디(Ashoka Mody)의 『두 개의 인도(India Is Broken: A People Betrayed, Independence to Today)』(Stanford University Press, 2023)는 이러한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려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도의 독립 이후 75년의 역사를 ‘성장 서사의 환상’과 ‘정치·경제 엘리트의 반복된 배신’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는다. 이 책은 단지 정책 실패를 나열하는 보고서가 아니다. 저자는 신화가 된 성장 서사를 해체하고, 그 이면에 놓인 구조적 불균형과 규범의 붕괴를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

책의 원제인 “India Is Broken”은 그저 수사로만 받아들여질 수 없다. 저자가 말하는 ‘부서짐’은 단지 경제적 지표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의 탈규범화, 공공서비스의 무력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법치의 실종 등 인도의 정치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진단이다. 그는 특히, 독립 이후 인도 정치 엘리트들이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에 집착하며, 교육·보건·고용이라는 “공공재”를 방기해 왔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비판은 고전적 개발국가 모델의 실패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도의 소위 민주주의와 정치제도가 그러한 불균형의 지속을 가능케 한 체제였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이 책의 접근은 많은 점에서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의 시각과 오버랩된다. 센이 발전을 인간의 역량을 확장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이를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서 공공 이성(public reasoning)을 중시한 반면, 모디는 비슷한 맥락 속에서도 그 가능성이 인도에서 지속적으로 좌절되었다는 현실에 더 냉정하게 주목한다. 『두 개의 인도』는 인도에 관한 비판적 정치경제학 연구의 전통을 잇고 있으면서도, 그 분석의 폭과 비판의 강도 면에서 한층 더 급진적인 진단을 제시한다.

이 서평은 아쇼카 모디의 저작이 기존의 인도 성장담론에 가하는 비판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 문제의식이 인도 현대사 이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책의 주요 주장과 서술 방식을 검토하고, 이 책에 나타난 현대사의 흐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화된 문제에 대해 고찰한다. 이러한 저자의 서술이 기존의 지배적인 성장담론에 도전하는 대안적 서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두 개의 인도』가 단지 인도의 실패를 나열한 책이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 규범, 제도에 대한 더 넓은 질문을 제기하는 의미 있는 저작임을 밝히고자 한다.

II. 경제학자의 ‘역사’ 쓰기

『두 개의 인도』는 표면적으로는 경제학자의 저작이지만, 그 실제 내용은 인도의 독립 이후 75년에 이르는 현대사를 정치와 경제의 결합된 흐름으로 풀어낸 비판적 정치경제사에 가깝다. 실제로 저자는 서문에서 자신의 책을 “현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사서”로 규정하고 있다. 저자 아쇼카 모디는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로서 국제금융과 거시경제 분야에서 학문적 입지를 다져온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 책에서 전통적인 경제모델이나 정책효과 분석이 아닌, 인도의 정치와 제도,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시민의 삶을 모두 포괄하는 서사를 들려주며, 경제적 지표가 가려온 현실을 역사적으로 해부하고자 한다.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구분은 저자가 설정한 인도 현대사의 시대구분이라 할 수 있다. 1부(1947~1964)는 네루 정권하의 국가주도 산업화와 민주적 제도 설계의 이상을 다루며 “가짜 사회주의”라는 상징적 제목을 붙였다. 2부(1964~1984)는 네루 사후 샤스트리를 거쳐 집권한 인디라 간디 시기의 폭력적인 권위주의 통치와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신랄한 서술이다. 3부(1985~2004)는 어머니의 뒤를 이은 라지브 간디와 나라심하 라오 시기, 그리고 INC(Indian National Congress, 인도국민회의)와 BJP(Bharatiya Janata Party, 인도인민당)가 각각 정당 연합을 이끌며 각축하던 2000년대 초반의 점진적 경제 개혁과 정치적 불안정을 이야기한다. 특히 1991년 경제 자유화 이후부터 성장률 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였고, 인도는 일자리 없는 성장을 구가했다. 마지막 4부(2005~현재)에서는 만모한 싱을 총리로 내세운 INC의 (지금까지의) 마지막 집권기와 나렌드라 모디가 새로운 리더로 부상한 BJP 정권하의 민주주의 위축과 규범의 붕괴를 다룬다.

각각의 시기는 정치적으로 다음과 같이 특징지어질 수 있다. 제1기는 전혀 사회주의적이지 않았던 가짜 사회주의, 제2기는 겉모습뿐인 민주주의에 개입된 폭력과 권위주의, 제3기는 새로 등장한 경제 개혁이라는 정치 아젠다와 발전의 그늘에서 탄력을 얻어가는 힌두뜨바 정치, 제4기는 왜곡된 종교민족주의와 무너진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저자는 시기별 특징을 알려주는 정책과 에피소드의 서술을 통하여 그의 시대구분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독립 이후 인도 현대사를

정치적 기대와 경제적 실패가 교차하며 시민의 삶을 배신해 온 역사로 일관되게 서술한다. 그는 단지 정치인의 오류나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도 국가 자체가 구조적으로 대다수 시민의 역량을 확장할 의지도, 능력도 결여하고 있었다고 본다. 인도의 정치경제 시스템은 공화국 초기부터 배제를 내포한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조는 더욱 고착화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도를 단순한 오류 또는 부분적인 결함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 이미 핵심 제도와 규범이 근본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체제로 진단하고 있다. 인도의 ‘부서짐’은 특히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첫째, 공공서비스의 실패이다. 인도는 교육, 보건, 주거, 환경 등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방기되었으며, 이는 계층과 지역 간 격차를 극심하게 만들었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실패이다. 저자는 농업의 실패와 제조업 부진으로 인하여 젊은 인도인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구조적 실업 내지 불완전고용 상태에 처해있다는 통계를 반복 인용하며, 이를 성장 서사의 근본적 실패로 본다. 셋째, 규범의 침식과 민주주의의 탈정치화이다. 형식적 다원주의와 정기적 선거에도 불구하고, 공공 담론은 위축되고, 법치와 책임성의 기제가 작동하지 않으며, 종교적·민족주의적 선동과 폭력이 정치의 일상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도 현대사의 반복적 패턴, 즉 ‘정치적 선동, 경제정책의 왜곡, 방기로 인한 공공영역의 악화, 시민권의 후퇴’라는 악순환을 역사적 구조로 읽어내며, 이를 통해 오늘날 인도의 위기가 단지 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히 시대별 사건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시기별로 상응하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그 수치들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과 제도적 작동 속에서 생성되었는지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반복되는 정치경제적 패턴의 구조적 기제를 드러낸다. 특히 그는 독립 초기의 민주주의 설계 자체가 시민의 직접적 역량 강화보다 국가의 산업화·안보 중심주의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도 민주주의의 위기가 단지 최근의 정치·사회 상황에 의한 퇴보가 아니라 구조적 결핍의 귀결임을 시사한다.

『두 개의 인도』는 이처럼 현대 인도의 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축을 동시에

재검토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통합적 서사를 통해 인도 발전 신화의 균열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경제학자의 손으로 쓰인 이 역사적 서사는 기존 통계를 새로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통계를 가능하게 만든 제도, 사회적 정서와 열망, 권력관계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모디의 책은 인도의 정치경제사 연구는 물론, 발전국가론, 민주주의 이론, 규범적 제도주의 연구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III. 구조적 비판의 시선

『두 개의 인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책이 인도 경제를 다룬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정책 효과 분석이나 성장률 중심의 논의에 머물지 않고, 국가와 제도의 구조적 작동 방식에 대한 비판적 정치경제 분석으로 확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전통적 개발경제학의 틀을 넘어서, 인도 국가가 독립 이후 반복적으로 시민 다수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방기하고, 공공의 책임성을 외면해 왔다는 점을 중심축으로 삼아 현대사를 해석한다. 그의 분석은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기술적 평가보다는, 정치 엘리트와 제도가 어떻게 제도화된 무관심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재생산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가의 이름을 사용하는 정치 엘리트가 시민이라는 또 다른 인도의 삶을 외면해 온 가시적 흔적들—“배신”으로 표현되는 행위—이 반복적이고 구조적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서술함으로써 소위 인도의 ‘발전’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은 아마르티야 센과 장 드레즈(Jean Drèze)가 함께 쓴 『인도: 경제 발전과 사회적 기회(India: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Opportunity)』(1995)와 흥미로운 비교 대상이 된다. 센과 드레즈는 교육, 보건, 영양, 사회복지와 같은 기본적인 공공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적 제도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시각은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데도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효했고, 당시의 발전담론을 인간중심으로 전환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크다. 아쇼카 모디는 센과 드레즈가 강조했던 공공재의 확충과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 정치적·제도적 원인을 보다 직접적으로 파고든다.

모디 역시 인간 삶의 조건에 주목하지만, 그의 접근은 훨씬 더 급진적이며 비판적이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인도의 정책 엘리트들이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외면해 왔으며, 그 외면이 체계화되고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구조적 배신’으로 기능했다고 주장한다. 센과 드레즈가 민주주의의 제도적 잠재력에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었다면, 모디는 그 민주주의 자체가 기능적 외형만을 유지한 채 규범적 기반은 붕괴되었다고 본다. 특히 선거의 정례화, 사법 제도의 형식적 독립, 언론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의 전통적 요소들은, 그의 분석에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시각의 차이는 센과 드레즈(1995)의 저작과 모디의 『두 개의 인도』가 출판된 시기상의 차이가 가져온 사회적 맥락의 변화에서 기인한 점도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두 개의 인도』가 출판된 2023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인도에서 일어난 가장 괄목할 만한 현상은 사회를 경직시킨 힌두민족주의 정치세력의 성장과 경제발전의 과실을 강탈하는 부패한 특권층의 성공이었다. 두 개의 인도 사이의 거리는 더욱 극단적으로 멀어졌다.

인도 민주주의에 대한 모디의 이러한 진단은 현대사에 나타난 반복적 패턴—정치적 선동, 포퓰리즘적 수사, 성장 지표의 조작, 공공서비스의 축소, 시민권의 위축—을 하나의 정치경제적 회로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이를 단지 특정 정권의 오류나 한계로 환원하지 않고, 제도화된 무책임성의 산물로 본다. 특히 그는 1991년의 경제 자유화 이후, 인도 국가가 최소국가(minimal state)로 변모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시장과 민간의 영역으로 이전한 과정에 주목한다. 이러한 전환은 신자유주의라는 일반적이고 어느 정도는 표준화된 분석을 넘어, 국가가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적 역할을 본질적으로 포기한 역사적 순간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인도는 눈부신 성장률과 황폐한 시민의 삶이 공존하는 국가로 전락했다. 이것은 이 책에서 (양질의) 일자리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는 구조적 모순으로 요약되며, 특히 21세기 들어 젊은 인구의 대량 실업 상태와 교육의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위기로 지목된다. 물론 일자리와 교육 문제는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며, 독립 이후부터 지속되고 축적되어 온 구조화된 문제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문제들이 단지 기술적 조정이나 정책 개선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여겨진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정치 엘리트와 부유층 사이의 묵시적 카르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무관심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인도 현대사를 단지 성장의 굴곡이나 개혁과 후퇴의 반복이 아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구조적 비대칭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된 역사로 읽게 한다. 모디에게 있어 오늘날 인도의 위기는 단지 정치의 위기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조직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자체의 붕괴를 의미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개의 인도』는 인도 성장담론의 허구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급진적 개입으로 자리매김한다.

IV. 성장담론에 대한 도전과 배신의 서사

『두 개의 인도』는 구조적 정치경제 비판에 근거하여 전통적인 인도의 경제 발전 서사에 균열을 내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안서사는 존재하는가?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 “배신(betrayal)”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인도 국가와 정치 엘리트들이 어떻게 시민을 지속적으로 실망시키고 좌절시켜 왔는지를 강조한다. 이 책에서는 인도의 시민들이 독립 이후 정치 엘리트에게 실망하고, 제도의 약속에 배신당해 왔다는 여러 이야기가 서로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 책은 정치경제적 실패의 구조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 실패가 인간적 고통과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졌음을 상기시킨다. 이 표현은 단순한 정서적 수사가 아니라, 저자가 인도 현대사를 바라보는 윤리적 프레임을 구성한다.

또한 “배신” 사례의 반복적 언급은 독립 이후 인도 국가가 자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치적·사회경제적 기대를 체계적으로 저버려 왔다는 역사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책의 부제 “A People Betrayed: Independence to Today”는 배신이라는 개념이 단지 특정 시기나 정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독립 이후 지속되어온 국가 서사의 핵심을 이루게 된 성장담론에 대한 윤리적 반론임을

보여준다. 이로써 『두 개의 인도』는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인도 발전 서사’에 맞서고 있으며 그 대안적 서사의 가능성 또는 시도로도 읽힌다.

인도의 경제 성장 서사는 오랫동안 정책 결정자, 언론, 기업가, 학자들에 의해 국가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왔다. 네루 시대의 국가 주도 중공업 중심 발전, 인디라 간디의 “빈곤 퇴치(Garibi Hatao)” 구호 등은 전통적인 소위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에서 생성된 발전 서사였다. 1991년 경제 자유화 이후 발전 서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IT 강국”, “글로벌 생산기지”, “신용 중산층의 부상” 등의 표현을 통해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이는 단지 경제 지표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인도를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성공적으로 통합된 국가’로 규정하고,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불평등은 일시적 과도기로 간주하는 식의 역사 인식과 결합되어 있다. 특히, 빠나가리야나 구르짜란 다스와 같은 경제학자·전문가들이 이러한 서사를 정교하게 다듬으며, ‘성장하는 인도’의 이야기를 일관되게 전파해 왔다.

그러나 모디는 이러한 낙관적 발전 서사를 전면적으로 반박한다. 발전 서사 속에서 시민은 미래의 수혜자이자 잠재적 소비자로서 호명될 뿐, 현재를 살아가는 권리 주체로서의 위치는 종종 탈각되어 있었다. 그는 “배신”이라는 단어를 통해, 국가가 성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실제로는 시민 다수가 공공 서비스, 양질의 일자리, 정치적 표현과 참여에서 점점 더 배제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가 제시하는 배신의 서사는, 성장의 수혜가 어떻게 소수에게 집중되었고, 또 공공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황폐화되었는지, 그리고 시민 다수는 기본권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배제되었는지 이야기한다. 그의 분석은 성장률이라는 숫자에 대한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그 숫자가 누구의 삶을 대변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있는가를 묻는 구조적 질문으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 모디의 배신 서사는 발전 서사의 이면에 가려진 사회적 고통, 정치적 무관심, 제도적 방기의 축적된 역사를 발굴하는 대안적 서사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두 서사는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주어의 설정, 시간성의 구조, 정서적 프레임에서 본질적으로 충돌한다. 성장 서사는 국가를 일관된 주체로 상정하며, 실패보다는 전진을 강조하고, 미래를 향한 약속을 반복한다. 반면, 배신의 서사는 국가를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해 온 행위자로 설정하고, 과거의 반복과 실패

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며, 미래로 향하기에 앞서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한다. 전자는 성공과 낙관을 정서적 자원으로 삼는 반면, 후자는 실망, 분노, 불신과 같은 감정을 호출한다.

인도 민주주의와 공화국 체제는 국가 형성과 함께 시민에게 일정한 권리와 보호를 약속했지만, 현실에서는 그 약속이 구조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책이 전개하는 배신 서사의 핵심이다. 모디는 이 서사 전략을 통해, 인도의 발전 서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국가주의적 이상과 기술관료적 낙관주의에 정면으로 맞선다. 그는 이를 해체하기 위해 통계적 증거, 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일상적인 사회적 파열의 사례를 병치한다. 예를 들어, 교육 기회에서의 지역 간 격차, 의료 인프라의 붕괴, 청년 실업의 확대 등은 단지 수치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양한 에피소드와 당대의 유명 영화 등을 인용하며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병치는 독자로 하여금 구조적 실패를 정서적으로 인지하도록 유도하며, 서사적 개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요컨대, 『두 개의 인도』는 민주주의와 발전을 둘러싼 인도 국가의 신화를 해체하는 동시에, 그 신화가 시민의 현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었는지를 구조와 현상의 이중 분석을 통해 설득력 있게 드러낸다. 성장이라는 장밋빛 서사에 대응하여, 제도적 무책임과 시민의 고통이 반복된 정치경제사의 패턴을 기억하고 말하는 새로운 서사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 책이 반복하는 “배신”이라는 어휘는, 시민 다수의 체감된 경험을 역사화하려는 시도이며, 성장 서사에 균열을 내는 감정적·윤리적 저항의 언어이다. 그것은 단지 실패를 진단하는 작업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고, 누구의 언어로 말하며, 어떤 미래를 상상할 것인가를 묻는 정치적 개입의 서사이기도 하다.

V. 성장 신화 이후의 인도, 그 너머

『두 개의 인도』는 인도의 현대사를 정치경제의 구조적 실패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며, 그 과정에서 성장의 언어로 포장된 국가 서사의 이면을 논의의 중심

으로 가져왔다. 아쇼카 모디는 각종 지표로 무장한 경제발전론이나 민주주의적 제도라는 외피로 포장된 현실을 넘어서, 그 이면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시민 다수의 기대를 저버려 왔던, 정파와 체제를 초월한 인도 현대사의 반복된 현상은 결국 교육, 일자리, 위생, 환경과 같은 공공재의 미비와 시민권의 축소라는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 문제들은 국가의 지속적인 책임 회피, 범죄와 정치의 결합, 정치와 경제 엘리트의 유착이 얽혀 있는 부패와 뗄 수 없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인도 사회에 이미 구조화되었다고 진단한다. 이것을 시민을 중심에 두고 다시 표현하자면, 국가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배신으로 빈곤, 공공재의 결핍 등을 포함하는 시민권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배신의 서사’는 단지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성장 중심 발전 서사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시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대안적 서사로서 기능한다.

배신의 서사는 지배적인 발전 서사—진보, 개혁, 도약—에 대한 일정한 탈신화화 전략으로 읽힐 수 있다. 독립 이후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빛나는 인도(India Shining)’와 같은 수사적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저자는 이 국가 서사를 무책임과 시민 배제라는 구조적 배신으로 치환함으로써,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를 윤리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재정의한다. 즉, 국가는 정책 실패의 단순한 행위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민의 신뢰를 배신해 온 부도덕한 권력의 실체로 규정된다. ‘배신’이라는 어휘는 단지 정책 실패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아니라, 시민과 국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파괴되어 왔는지를 드러내는 윤리적 코드로 작용한다. 그 과정에서 이 책은 단지 제도나 정치 세력 또는 그 지도자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국가와 시민 사이의 단절을 폭로하는 윤리적 선언문에 가까워진다.

이 책의 진단은 매우 비판적이며, 희망의 가능성을 구조 내에서 찾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는 독자에게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아마르티야 센과 장 드레즈, 또는 비판적 사회운동가인 아룬다티 로이(Arundhati Roy)처럼 여전히 민주주의 제도 내부에서 점진적 개선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모디의 진단은 지나치게 냉소적일 수 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작점인 일자리의 창출이나 윤리 규범의 재확립 등은 결코 쉽고 빠른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나 모디가 대안 없는 비판으로 일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가 제

시하는 최선이자 유일한 희망은 “새로운 시민의식”에 기반한 지방 자치이다. 이를 통하여 정치의 부패를 청소하고 교육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 책에는 부패와 시민의 생존 기반 파괴를 폭로하는 다양한 예시가 등장하지만, 좀 더 민주적인 지방분권화를 의미하는 ‘깨랄라 케이스’ 역시 네루 시대에도, 경제 개방 이후에도 존재하여 희망의 서광을 비춰준다.

저자는 인도 현대사의 진행 과정 곳곳에서 메이지 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 60년대 이후의 한국,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경제 발전과 인도를 비교하며 그 나라들은 해 냈고, 인도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나 외부자의 시각으로는 오히려 모드가 들려주는 인도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장 담론이 민주주의의 대체재처럼 기능하고 있는 오늘날, 이 책은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이 공유하는 성장 담론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생각된다. 한국을 포함한 탈식민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혹은 ‘신흥 강대국’이라는 명명 속에 반복해 온 국가-시민 간의 구조적 비대칭은, 어쩌면 인도의 ‘배신의 서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두 개의 인도』는 특정 국가의 사례 연구를 넘어, 탈식민 시대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다시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 책은 성장률의 눈부신 곡선을 넘어서 시민의 삶의 궤적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성과 역사적 윤리를 되묻는 작업이야말로 진정한 현대사 서술의 과제임을 일깨워준다. 『두 개의 인도』는 단지 인도라는 국가에 관한 책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발전,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쓰기를 요구하는 정치적 텍스트다.

투고일: 2025년 7월 28일 | 게재확정일: 2025년 7월 30일

참고문헌

Bhagwati, Jagdish and Arvind Panagariya. 2012. *India's Tryst with Destiny: Debunking Myths that Undermine Progress and Addressing New Challenges*.

HarperCollins.

Das, Gurcharan. 2000. *India Unbound From Independence to the Global Information Age*. Penguin Books.

Roy, Arundhati. 2011. *Broken Republic: Three Essays*. Hamish Hamilton.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Sen, Amartya and Jean Drèze. 1995. *India: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Opportunity*. Clarendon Press.

“Why Prof. Ashoka Mody Believes India is Broken.” Princeton International, March 1, 2023, https://international.princeton.edu/news/why-prof-ashoka-mody-believes-india-broken?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 7. 20.).